

한나라 대선주자 오늘 '광주 정책 토론회'

리허설에 도상훈련... 과열 우려도

李 "지역현안 질의 만반 대비" 朴 "경제 지도자 이미지 강화"

지지모임 집결 충돌 가능성

29일 광주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주자 '박 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의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해 막판 점검작업에 전력을 쏟았다.

우선 이명박 전 시장은 28일 개인 일정을 줄인 채 토론회 최종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이미 수차례의 '도상훈련'을 마친 이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이 직접 준비한 6분 분량의 연설문과 실무진이 마련한 예상 질의·응답안을 검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전 시장은 또한, 시내 모처에서 경제정책 공약인 '대한민국 7.4.7 전략'과 '한반도 대운하 구상' 등을 주관하는 핵심 정책자문단과 함께 토론회 리허설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지난 주말 준비를 마쳤으며 이 전 시장은 오늘 연설문과 토론문을 검토했다"며 "광주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만큼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오후 내내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기초발제문 문구 수정 등 토론회 준비 최종 점검에 집중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경제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표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등을 통해 이 전 시장이 내세우고 있

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 전 대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자질을 증명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이 전 시장을 둘러싼 경제적 이미지가 허구라는 점이 이날 토론회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 지지세력간 '과열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 중간에서 양측 지지 세력 간 충돌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전 시장의 팬클럽 모임인 MB연대는 "회원 300여명이 29일 토론회가 열리는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선거는 축제'라는 모토로 각종 공연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원들도 이날 토론회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9일 대회에서 양측이 세 싸움을 벌이는 것은 우리 망신"이라고 양측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이재우 최고위원도 "행사장이 과열된다면 조기 경선장을 방불케 할 것 같으니, 플래카드나 피켓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대선주자 정책토론회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나라당과 관계자들이 토론회장인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28일 오후 광주YMCA에서 문화도시사업 관련 특별성명을 내고 지역 문화계 인사 추진단장 기용 등 정부에 대한 4개항의 요구를 발표했다. /고경성기자 ksgo@kwangju.co.kr

문화수도 중앙 주도 더이상 안된다

■ 광주문화도시협 특별성명 왜 나왔나

'광주·전남문화연대' 등 지역의 25개 시민·문화 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도시협의회'(협의회)가 28일 오후 발표한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현 국면에 대한 특별성명서'(본보 28일자 1면)는 문화도시사업의 현재 상황을 '중요한 조정 국면'으로 규정, 4개항의 요구 조건을 담고 있다.

이날 특별성명서는 협의회가 현 단계를 법정종합계획의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조성위원회와 추진단 등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우선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 지역 통합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지역 문화전문가를 임용해 줄 것과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후일 추진단장에 광주지역 문화계

인사를 외에도 청와대와 문광부 출신 공무원들이 배제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 이영진 전 추진단장(당시 본부장) 재직 시절 지역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중앙집권식의 수직적 구조에서 사업이 진행된 패턴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의도다.

이들은 또 조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해 줄 것과 법정종합계획에 국비지원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20명으로 구성된 실시간혁신위원회(위원장 광주시장) 설치와 시민사회협약위원회(16인 이내), 민자유치위원회(16인 이내)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역사업 왜 지역서 발목 잡나"

박준영 전남지사 일부 언론·정치인에 불만 폭발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등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잘나 사람들이 많다"며 언론 등 지역 여론 주도층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지사는 28일 서울에서 광주지역 국회 담당 기자들과 만나 "4천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국고 지원은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지역은 전남도나 광주시가 무슨 일을 추진하면 다 잘나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한, "F-1 대회의 경우, 민자를 80%나 유치했으며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우도 전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일부 언론 등 지역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영남은 언론 및 여론 주도층이 지역 현안에 대해 조용히 정부를 압박하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영남과 호남의 가장 큰 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지사는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

다면 나를 비난하지 왜 지역 현안을 흐드드나"며 "솔직한 심정으로 (지역 현안을) 추진하고 싶지 않은 것이 대단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말을 아껴왔던 박 지사의 스타일로 미뤄볼 때 이같은 격정 토로는 이례적이다. F-1 특별법 등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과다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순차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역현안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한 총리에게 한미 FTA 후속조치로 도가 마련한 12대 정책과제와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사업(J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척지 양도·양수문제 해결, F1 경주장 예정 부지에 대한 조기 토지사용 승낙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 지사는 이날 낮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2008년 현안사업 지원 국고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표 "7월부터 '양강 구도' 변화될 것"

최혜·이정록교수 이명박 자문단 참여

"똥밖이다" "대승적 차원"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2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7월 중순이 넘어갈 때 사실상 여론이 정립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홍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양대 후보에 비해 여론 지지율, 조직, 자금 등이 크게 열세인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 지지율이 제대로 올라가는 (예비)후보가 결국 후보가 된다"면서 "앞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면 양대 주자 지지율에 변동이 올 것이고, 7월부터 도덕성 검증이 있게 되면 여자, 병역, 재산, 세금 문제에서 나는 검증당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대 주자의 지지율을 합하면

65%를 상회하는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집단 최면에 빠져있다"면서 "당의 지지율은 35~36%에 머물고 있으므로 나머지 30%는 허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양대 주자를 모두 겨냥하고 있던 하지만 특히 검증 문제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선두 주자인 이 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복충화하는 것이 맞지 환경 재대안을 가져올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에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감세 및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서 "박 전 대표의 독창적 안이 보기보다 한나라당이 5년간 내세우던 정책이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연합뉴스

전남대학교 중진 교수인 최혜(인류학), 이정록(지리학) 교수가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자문단 교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수 모두 학내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유력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 전 시장 캠프 지원은 지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더구나 이 전 시장이 호남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한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두 교수의 행보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즉 '똥밖이다'는 반응과 함께 '정책 조언' 정도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양론이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조언만 해주는 것이니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며 "어느 후보라도 지역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자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두 교수와 함께 목포해양대 김형근 교수도 27일 발표된 이명박 전 시장 정책자문단에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립 50주년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먼지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신뜻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

용각산 쿨
TV-CF